

'94 부산국제식품 및 포장기술전 (POFAS '94)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최한 '94 부산국제식품 및 포장기술전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국제무역전시관에서 86개 식품 관련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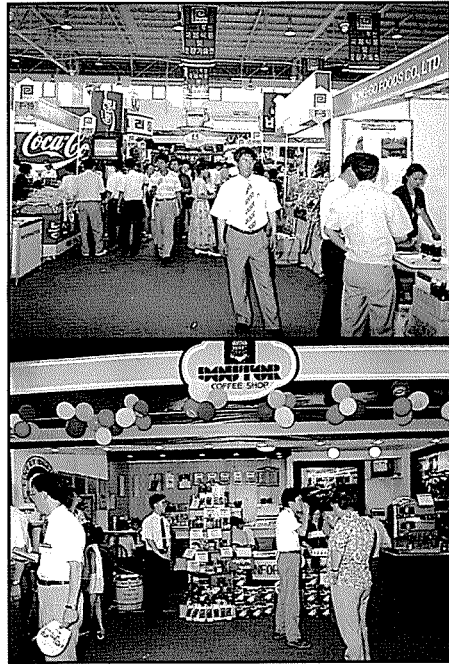
지난 6월 부산국제무역전시관 개관에 발맞춰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지방 우수식품의 전국 확대 보급 및 포장기술 향상이라는 전시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 서울 위주의 전시회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개최된 대규모 행사라는 데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총 3천2백40 평방미터, 2백 부스의 전시 규모에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전시회는 식품 29개 업체, 식품기계 25개업체, 베이커리 및 관련 18개 업체, 포장 14개 업체가 참여해 자사 취급품목을 전시했다.

가장 참여 업체가 많은 식품 부문은 경우 된장, 고추장, 간장, 각종 양념 등 전통식품을 비롯해 국수, 만두, 면류 등이 선 보였으며 죽차, 죽류 등의 상품이 전시돼, 최근 소비자의 건강 선호 추세를 반영했다.

또 기계업체의 경우도 녹즙기 등 건강식품 제조기와 여타 식품제조 기계가 선보였다.

15여개 식품 포장기계 업체가 참여한 포장 부문에는 면류, 소시지 등 육 가공품 포장 기계를 비롯해 병 내용물 주입기 및 세척 기계, 라벨 부착기,



총 86개 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커피기계업체 참여 감소는 난립된 커피시장이 정리되는 사실을 반영하는 듯.

이번 전시회는 규모나 관람 인원면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용기 캡 포장기, 진공 포장기 등이 선보였으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새로운 신상품이 적었으며 단순한 기능의 포장 기계만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베이커리 및 관련 업계 수는 20여개 업체. 우선 베이커리 업체로는 크라운베이커리, 고려당, 파리크라상이 참여해 자사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전시장에 대형오븐 등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무료 시식 행사를 펼쳤다.

이들 3개 준양산 업체의 이번 전시회 참여는 최근 지방의 공장 설립과 함께 영남권 집중 공략의 일환으로 활발한 가맹점 확산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시회 참여를 계기로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일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전시회에는 현재 부산, 영남지역에 빵과 커피, 피자를 주 품목으로 「그랑스또」라는 체인사업을 벌이고 있는 세한외식산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유니온무역, 금마무역, 대이상교, 대영공업사가 오븐과 도우컨디셔너, 믹서, 파이롤러 등 자사 취급품목을 선보였으며, 광



크라운베이커리, 고려당, 파리크라상 3개 준양산 업체의 참여는 영남권 공략을 위한 영업전략으로 풀이된다.

명상사, 금호엔지니어링, 동리상사, 한신기업, 희트레이딩이 주스기, 밀크쉐이크기, 제빙기, 피자 오븐 등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두드러진 점은 커피기계 수입업체들의 많은 참여. 커피 전문점 체인 사업을 하는 한국 도토루커피(주)를 비롯해 나이스, 다샘상사, 두리양행, HRS, 명일무역이 각종 커피기계 및 커피 추출기를 선보였으며 기타 주방기기업체들도 적은 숫자나마 커피관련 기기를 전시했다.

이는 근래의 커피 전문점의 급속한 확산을 반영한 것이나 타 전시회보다 커피기계 수입업체가 줄어든 사실은 최근 난립해 있던 커피 전문점이 정리되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음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대회는 규모면에서 성공적인 전시회로 평가할 수 있다. 처음으로 지방인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전시장 또한 외곽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8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관람객도 약 2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이면에는 행사 주최측과 전시장측의 운영 미숙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야간에 전원공급이 차단돼 일부업체의 전시품목에 문제를 유발한 것이나 전시장의 무질서, 쓰레기 처리 등과 별관의 전시품목 중 식품 및 포장과는 무관한 공구류, 의류 등이 전시돼 전시회 성격과 맞지 않은 점, 행사 당일까지 부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차기 대회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글 박종산>

포장기계업체의 제품, 신상품이 적었고 단순 기능의 포장기계가 주종을 이뤘다.

